



동성케미칼, 인니에 동남아 최고 수준 글로벌 PU 허브 준공

MONTHLY **KOFA**
코파의

월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28**
2025/05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자카르타-부산 하늘길 언제 열리나... 직항 노선 지연에 인도네시아 동포사회 불만 고조

항공사 운수권 확보 후 미취항... “인천 경유 불편 커, 한인 단체 나서야” 목소리도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노선 2024.6.19.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잇는 직항 노선 개설이 기대와 달리 지연되면서 현지 동포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르바란(이슬람

최대 명절) 연휴를 맞아 고국을 방문했던 동포들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조속한 노선 개설을 촉구하고 있다. 자카르타-부산 노선은 인도

네시아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약 3만 5천 명에 달하는 동포들은 해당 노선이 개설되면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수도권 외 지역, 특히 영남권 출신 동포들에게는 고향 방문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운수권을 확보한 일부 항공사들이 실제 노선 취항에 나서지 않으면서 동포 사회의 기대는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11일간의 르바란 연휴를 준비하며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 동포는 “많은 동포가 염원하는 인기 노선이 될 것이 분명한데, 왜 실제 운항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자카르타에서 인천까지 7시간 넘게 비행한 뒤,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부산까지 가는 과정은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일부 동포들 사이에서는 항공사들의 ‘외면’을 비판하며 한인 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동포는 “이미 허가까지 받아 둔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것은 동포 사회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공사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인회 등 동포 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인도네시아 직항노선을 배분 받은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2024.5.27.

자카르타-부산 노선은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와 고국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계당국과 해당 항공사의 조속한 결단 및 노선 취항 계획 발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동포 사회는 해당 노선이 하루 빨리 현실화되어 고국 방문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인포스트 동포사회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 가져



▲산불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사진=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현)는 4월 22일(월), 한인회 회의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성금은 한인사회 각처에서 모은 총 11억 8천만 루피아(IDR 1,180,000,000)로, 경

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소장 정성웅)와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소장 김재현)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되며 해당 성금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구호 활동과 지역 환경 회복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 3월 27일(목)부터 4월 23일(수)까지 진행되었으며,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한인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지난 3월 21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을 비롯해 경북·경남 지역과 울산

까지 확산되었고,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산림과 인근 4만5천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김종현 한인회장은 “녹록지 않은 이곳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한인사회 개인 및 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웅 경북자카르타사무소 소장은 “한마음으로 도움을 보내주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이 성금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금 전달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회장:이종윤)에서도 개별기업별 따뜻한 성금을 전달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다
KMK 송창근회장 50,000,000
SMI 이종훈회장 30,000,000
한영 박길용법인장 10,000,000
ACI 윤범수 부회장 10,000,000

한신컴프레사 유성열총무 20,000,000
PT.ASSEM INDO 박성호 10,000,000
최성미 총무 5,000,000
sumber makmur sukses 윤 종찬 3,000,000
태광 인도네시아 100,000,000
총금액 : 238,000,000루피아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동성케미컬, 인니에 동남아 최고 수준 글로벌 PU 허브 준공

- 아세안·미주·유럽 등 글로벌 시장 확장 교두보 역할
- 기존 공장의 3배 생산능력 확보...연산 6만7천톤 규모
- 연간 2천억 매출 예상...인도네시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친환경 소재 과학 기업 동성케미컬(대표이사 백진우·이만우)이 인도네시아 까라왕 지역에 신규 폴리우레탄 공장을 구축하고 30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백정호 동성케미컬 회장, 백진우·이만우 동성케미컬 대표이사를 비롯해 로산 퍼카사 로슬라니(Rosan Perkasa Roeslani)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대리 등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송창근 명예회장,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이종윤회장, 협력사 임직원 등 주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성케미컬은 지난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폴리우레탄 공장을 착공, 올해 1월 시생산을 완료하고 2월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동성케미컬 인도네시아 공장은 8만1천㎡ 규모로, 연간 약 6만7천 톤의 프리폴리머·폴리에스터 합성, 폴리우레탄 수지 생산이 가능하며 약 2천억 원의 매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동성케미컬의 기존 한국, 베트남, 중국 폴리우레탄 공장 생산능력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폴리우레탄 핵심 원자재를 최대 1천 톤까지 보관할 수



▲동성케미컬이 인도네시아 까라왕에 구축한 신규 폴리우레탄 생산 공장



▲동성케미컬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식 (왼쪽부터) 김태웅 동성케미컬 PU BU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백진우 동성케미컬 대표, 로산 퍼카사 로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 백정호 동성케미컬 회장,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대리, 이만우 동성케미컬 대표, 정덕우 동성케미컬 인도네시아 법인장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원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도 안정적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동성케미컬은 인도네시아 공장을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 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풋웨어, 합성피혁, 자동차, 전기·전자 소재 시장뿐 아니라 가구 시장에도 신규 진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만우 동성케미컬 대표이사는 사업경과 발표에서 “향후에 인접한 인도네시아의 물류적 강점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신공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약을 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백정호 동성케미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신공장은 동남아 최고 수준의 폴리우레탄 시스템 생산기지로서 아세안은 물론 미주, 유럽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글로벌 허브로 기능할 것”이라며 “독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산 퍼카사 로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축하사를 통해 “이번 동성케미컬 신규 공장은 인도네시아 경제와 한국, 인도네시아의 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까라왕에 신규 생산기지 준공이라는 중요한 결단을 해 주신 백정호 동성케미컬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동성케미컬)

■ 동성케미컬

친환경 소재 과학 기업 동성케미컬은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동성화인텍,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 제네셀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그룹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화학, 신발, 자동차, 포장재, 빌딩·건축, 에너지, 헬스케어, 코스메틱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최근 친환경, 고기능, 에너지, 바이오 4대 전략 사업부문의 소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102260)로 연 매출액은 약 1조 원이다.

www.idongsung.com



PT AIJ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IJUM GREEN NUSA

미국 관세로 인한 해고, 비공식 부문까지 확대 우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더 많은 근로자가 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업률 증가는 현지 비공식 부문의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지 며칠 만에 섬유, 가구, 수산업, 식음료 등 여러 현지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수출을 저해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지난 9일, 관세가 미국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다른 나라 상품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결과적으로 해외 수요와 현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해고를 포함한 효율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 중단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가 미국 관세의 타격을 입기 전인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8만 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부는 올해 첫 두 달 동안 18,610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해고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지난 3월 보고 규정 준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실제 수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해고된 근로자가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경영자협회는 50개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단체



▲인도네시아 한 시민이 집에서 쉬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분기에 6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가 발효 예정됐던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선택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부과된 32%를 포함한 관세 정책을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측과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해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 베테랑 국립개발대학(UPNVJ)의 애널리스트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수출 수요의 잠재적 감소를 경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전자 및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글로벌 제조 공급망의 일부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인도네시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아흐마드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 국가와 같은 비 전통적 지역을 대외 무역의 우선 순위로 삼아 수출 시장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경제학자 안드리 사프리오 누그로호는 섬유, 신발, 전자 제품 등의 제조업과 해산물, 특히 새우 수출업체가 관세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NDEF는 14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관세로 인해 전자 제품이 10%, 섬유 및 의류가 7%, 기타 제조업이 22%로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수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급격한 감소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부문이 저부가가치 및 비용에 민감한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회복력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노동 단체들은 정부가 더 많은 해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할 것을 요구했고, 뿌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일 이 제안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드리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를 막을 수 없다며, 대신 정

부가 보조금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과 현금 흐름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부는 지난 10일 트럼프 관세가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연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부문 성장
비공식 고용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지만, 안드리는 이 부문이 낮은 수입과 불안정한 소득,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지속 가능한 경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식 부문을 “취약한 완충 장치”라고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될 경우 미신과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과세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공식 부문의 성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확대하여 국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안드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정부가 적절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노동 구조는 지난 5년 동안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이 주도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공식 근로자의 수는 국내 전체 노동력의 57.95%를 차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www.fllogix.id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oor.
Jl. 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 : +62-859-3945-2622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이홍 노바텍스 대량해고 사태, 인력부 중재... 1천여 명 복직할 듯



▲해고된 이홍 노바텍스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짜레본에 위치한 이홍 노바텍스(PT Yihong Novatex Indonesia)가 지난달 노동자 파업으로 일시 중단됐던 공장 운영을 재개하면서, 해고된 근로자 1천여 명이 복직될 전망이라고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중재에 나선 인도네시아 인력부 산업관계·사회보장국의 인다 앙고로 푸트리 국장은 이날 “이홍 노바텍스가 해고된 근로자 중 200명을 복직시켰다”며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홍 노바텍스는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용 신발 및 섬유 제품을 생산해온 중국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10일,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한 공장 운영 차질과 고객사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주문 감소로 인해 1,126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르바란 연휴 전에 임금, 퇴직금, 휴일 수당이 지급됐다.

인다 국장은 “모든 해고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 노바텍스 파업 사태는 세 명의 직원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로 시작됐으나, 전체 파업으로 확산되었다. 나흘 동안 파업이 계속되자, 회사측은 지난 3월 전격 공장 운영을 중단했고 르바란을 앞두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1,126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세계속 한국인의 소중한 마음. 투표로 보여주세요

Represent the True Hearts of Koreans
around the World through Your Vote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Election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5. 4. 4. ~ 2025. 4. 24.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 2025. 4. 24.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5. 5. 20. ~ 2025. 5. 25.

매일 08:00~17:00 08:00 -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differ by diplomatic mission.

투표장소 Voting Place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 신분증명서(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명서는 필요없음
-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go.kr), and Overseas Korean Agency(ok.go.kr).



PT. YOU YEOUNG EMBROIDERY

최고수준의 품질과 뛰어난 광택!

100%의 폴리에스터 자수사로
원사 구매부터 연사, 염색, 와인딩, 품질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명 EMB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현재 약 1,500여 가지 색상
약 25만권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йки와 수십 년 동안 거래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자수사
50D / 2합 (5,000M)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재생사. Recycled)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밑실
75D / 2합 (144M)
스판 밑실
60S / 2합 (5,000M~50,000M)
주문생산 : 인견사 120D / 2합

PT. YOU YEOUNG EMBROIDERY

Kawasan Industrial Millenium Jalan Millenium 12 Blok F2 No. 7 Kel. Peusar Kec. Panongan, Kab. Tangerang – Banten 15710
Tel. +62 21-599-2386 Mobile. +62 822-4980-4125 Email. ufoemb@youyeoung.com





벨기에 브뤼셀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톤 보스(29)는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6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그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 ‘고 유러피안(Go European)’에 사용자가 몰릴 듯 밀려들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미국산 제품 보이콧(구매 중단)’이 목적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미국 브랜드 ‘나이키’ 탭을 누르면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 스위스 브랜드 ‘온’ 등을 대체품으로 안내하고, 미국의 ‘코카콜라’ 또는 ‘펩시콜라’ 대신 독일의 ‘프리츠콜라’ ‘비타콜라’를 추천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문을 연 시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뒤인 지난 2월 23일이다.

보스는 “미국산 보이콧을 촉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유명하지 않거나 유럽 브랜드로 인식되지 않았던 제품 및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한국일보에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치적 격변으로 유럽 상품에 대한 유럽인들의 공급 증이 커졌다”면서, 이 사이트가 유럽인들의 미국산 보이콧 흐름의 덕을 보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유럽을 동맹으로 여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썬튼 불신은 ‘관세 폭탄’이 날아들면서 폭발, 미국산 보이콧 움직임을 일으켰다. 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일인 2일)을 예고한 직후 방문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고 말한 것도 이를 증명한 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을 ‘위험 요인’으로 인식한 유럽 시민들의 보이콧은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고도화하는 모습이다.

보이콧의 시작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테슬라를 겨냥했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꺾은 그가 유럽 국유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 등에 대해 유

트럼프發 ‘관세 전쟁’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 인증 줄줄이… 유럽 ‘미국산 보이콧’ 커진다

‘동맹 무시’ 트럼프에 생긴 유럽 내 불신
‘관세 폭탄’으로 커지며 전방위적 보이콧
‘미국→유럽 브랜드 추천’ 홈페이지까지



▲유럽 내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이콧(구매 중단)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는 미국 브랜드 나이키 신발 대신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를 고르는 유럽인의 이미지를 챗GPT로 묘사한 것.

유럽 시민들은 테슬라 구매 중단으로 보복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

회(EAU)에 따르면 유럽 내 테슬라 차량 1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나 감소하며 반토막 났다. 테슬라 매장 앞 항의 시위는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탈출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산 상품 전반에 대한 보이콧으로 확산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지난 2월 16일 ‘바이 프롬 EU(Buy from EU·유럽에서 구매)’라는 페이지가 생겼는데, 생성 약 두 달 만인 15일 기준 가입자가 22만 명을 돌파했다. 페이지에는 ‘미국 상품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겠다’는 인증 글이 활발하게 올라온다. “마침내 구글 계정을 삭제했다”

“더 이상 나이키를 사지 않을 것” 등이다. 미국산 상품의 대안을 추천해 달라거나 질 좋은 유럽 상품을 추천하는 글도 엄청나다. 페이스북에도 국가별 보이콧 페이지가 생성됐고, 고 유러피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등장했다. 미국 여행 자제 분위기도 일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미국 국제무역청(ITA) 자료 등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에서 1박 이상 체류한 서유럽 방문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 급감했다. 특히 덴마크·아이슬란드로부터의 방문자는 30% 넘게, 독일·아일랜드·스페인·노르웨이로부터의 방문자는 20% 넘게 줄었다. 예정했던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도 빚칠친다.

시민들의 보이콧에 우회적으로 동참한 기업도 생겼다. 슈퍼마켓 체인 피텍스 등을 소유한 덴마크 살링그룹이 지난달 유럽 내 1,700여 개 매장에서 유럽 제품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일보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 재인니 한인회, 2025년 제33차 경주 APEC 정상회의 공동 지지 선언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이하 민주평통)와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공동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일환으로,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대한민국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제33차 APEC 정상회의는 2025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6일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 도시로 선정된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1개국 APEC 회원국 정상들과 2~3개의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정상회담으로, 미국 대통령, 중

국 시진핑 국가주석,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등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와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한인 사회 및 인도네시아인들에게 APEC 회의의 중요성과 한국의 국제적



▲2025년 제33차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공동 지지 선언 포스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제공)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자카르타경제신문]

톱슨목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운동화’ 덕에 4조원 번 조던

스포츠 선수 역대 누적 수입 1위
나이키와 ‘에어 조던’ 제휴 효과



마이클 조던

유니폼을 벗은 뒤 본게임을 시작했는지 모른다. 스포츠 선수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번 선수는 은퇴한 지 20년이 넘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62)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 스포티코가 23일(한국 시각) 발표한 최근 1년간을 포함해 전현직 스포츠 선수들 누적 수입을 조사해보니 조던이 현

역 시절과 은퇴 이후를 합쳐 41억5000만달러(약 5조9000억원)를 벌며 1위에 올랐다. 명목 수입은 30억달러 정도였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수입으로 계산했다. 2위는 타이거 우즈(40)로 27억9000만달러(약 3조9700억원)를 기록했다. 조던은 2024년 한 해 동안에만도 3억달러(약 4270억원) 수입을 올렸다. 조던 주요 수입원은 스포츠용

품 ‘에어 조던’ 시리즈다.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 인기가 높은 선수인 그는 연봉으로도 1억달러에 가까운 돈을 챙겼지만 더 많은 수입은 ‘에어 조던’을 앞세운 나이키와 협업에서 나온다. ‘에어 조던’은 나이키가 조던과 손잡고 만든 브랜드로 스포츠 업계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한 마케팅으로 평가받는다. 지금도 매년 1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히트 상품. 매출액 중 5%가량이 조던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노장 스타들도 갑부 스포츠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포르

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22억3000만달러), NBA ‘킹’ 르브론 제임스(40·18억8000만달러),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8·18억5000만달러)도 3·4·5위에 포진했다. 전설적인 골퍼 아널드 파머(작고·18억2000만달러)나 잭 니클라우스(85·17억5000만달러)는 현역 시절 명목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금액으로 6·7위에 자리했다. 테니스 전설 로저 페더러(39)는 은퇴 이후에도 유니클로, 운동화 브랜드 ‘On’ 등과 제휴하면서 15억9000만달러(약 2조2600억원) 수입을 기록했다. 상위 50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여성 선수는 테니스 세리나 윌리엄스(44)였다. 4억8500만달러(약 6900억원)를 벌며 40위에 올랐다. 광고

세계 최고 부자 운동 선수 금액은 물가 상승률 고려			
순위	선수	수입(달러)	종목
1	마이클 조던	41.5억	농구
2	타이거 우즈	27.9억	골프
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22.3억	축구
4	르브론 제임스	18.8억	농구
5	리오넬 메시	18.5억	축구
6	아널드 파머	18.2억	골프
7	잭 니클라우스	17.5억	골프
8	데이비드 베컴	16.1억	축구
9	로저 페더러	15.9억	테니스
10	클로이데 메이웨더	15.2억	권투

계약 외에도, 세리나 벤처라는 펀드를 운영해 투자 수익을 올렸다. 50인 중 가장 많은 부자 선수를 배출한 종목은 농구(NBA)로 13명이었다. 다음은 골프(8명), 복싱(7명), 모터스포츠(7명), 테니스(5명), 축구(4명), 미식축구(4명), 야구(2명) 순이었다.

조선일보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답습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설치비 X, PLN전기로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로 납부



운영비 X,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혁신적 탄소배출량 및 전기료 절감 실현

베트남 2공장의 현지 경험으로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주요생산품목

급유식 공기압축기 (Oil-Type)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인버터형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2단압축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 ~ 250kW
(50 ~ 350HP)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Oil-free)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2.2 ~ 40kW
(3 ~ 60HP)

·인버터형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kW ~ 450kW
(50 ~ 600HP)

·인버터형 오일프리 저압 공기압축기

- Blower (0.4 ~ 1.5bar)
- Low Pressure Compressor
(1.5 ~ 3.5bar)

진공펌프 (Vacuum Pump)

·스크류 진공펌프

압축공기 제습장치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라인쿨러
·에어필터

PT. COMPKOREA TEHNIK INDAH

Ruko Karawaci Office Park, Pinang Utara, Panunggangan Barat Cibodas Tangerang, Ruko H-25
김태봉 법인장 : +62-811-932-689 E-mail : kimtb160@gmail.com / ptcompkorea@gmail.com

Lippo Cikarang지점
홍창선 이사 : 082113702540

한국본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127-14 (가재리 396-6)
M. +82-10-2504-6443 E-mail : jr@compkorea.com

중기부, 해외진출 지원...자카르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지역 (25.4월 기준) >

구분	미국	중국	베트남	독일	러시아	일본	태국
지역	LA, 워싱턴, 시카고, 뉴욕	베이징, 선전, 상하이, 충칭, 하노이	호치민,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방콕			
구분	인도네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멕시코	칠레	사우디	UAE
지역	자카르타	뉴델리	알마티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리야드	두바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찌민 등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면 현지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비입주기업도 수시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 회계, 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국가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센터 운영 방향과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국가별 현지 전문가와 선배 진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해 국내 수출

초보 기업 대상으로 해외 진출 온라인 세미나, 후속 상담 등을 지원한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피해기업에는 입주 평가시 최고 수준인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입주 공간 부족으로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를 최대 4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아울러 대기 기간에도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법률·회계·노무 등 현지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https://www.kosme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과 해외멘토단 운영 등을 고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인포스트 동포사회부)



합변의 법률상식

PT PMA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

PT PMA(외국인 투자회사)는 설립 이후 운영 안정화, 확장, 투자 유치 등을 거쳐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내부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PT PMA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률적 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1. 변화하는 법률 환경 대응
인도네시아의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기업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투자법 및 산업 규제 변화 모니터링: 투자 제한 업종(Negative List)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및 노동 규정 준수: 확장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AMDAL) 및 노동법 준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정책 변화 반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보고 의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2. 내부 법적 리스크 관리
PT PMA가 안정적으로 운영

되려면 내부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 검토 및 리스크 예방: 주요 계약에 중재 조항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법 준수 및 직원 관리: 근로계약 체계를 정비하고, 외국인 직원의 취업 비자(KITAS)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 및 법인 관리: 정기적인 세무 감사 및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도입: 환경 규제 준수, 사회적 책임(CSR) 강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법, 데이터 보호법 준수를 통해 IT 기반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현지 네트워크 및 법률 전문가 활용: 정부 및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PT PMA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변호사 함상욱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공간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I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KEMENTERIAN 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PERKHA PBNB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Perkins

Cummins

YANMAR

MITSUBISHI

FAW

DEUTZ

mtu

ISUZU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 매
임 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 형 5kVA ~ 220kVA

중 형 250kVA ~ 700kVA

대 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bakchan@daum.net

호카, 새로운 차원의 '클리프톤 10' 선포

러너들이 믿고 신는 데일리 러닝화,
한층 부드러운 주행감으로 새롭게 탄생



▲사진제공=호카(HOKA)

글로벌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가 대표적인 데일리 러닝화 클리프톤 10 (Clifton 10)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향상된 쿠셔닝과 무게 비율을 구현하여 클리프톤 시리즈 사상 가장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한다.

클리프톤 10은 디자인 전반에 걸쳐 세심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세련된 실루엣, 향상된 착화감, 정제된 바닥 감촉을 통해 브랜드의 시그니처 러닝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반응성과 안정감을 한층 강화해 러너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한다.

지난 10년간 호카의 쿠셔닝과 편안함의 균형을 상징하며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은 클리프톤의 이번 10주년 모델에서는 러너와 소비자의 피드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설계와 개선된 기능을 통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부드러운 주행감을 실현했다.

호카는 “클리프톤은 많은 러너들이 처음으로 접하게되는 호카의 제품이며, 주변의 추천을 통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클리프톤 10은 러너들이 더욱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핏을 세심하게 조정했으며, 보다 폭신한 쿠셔닝을 추가해 편안함과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동시에, 호카만의 부드러운 주행감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클리프톤 10은 발의 주요 부위에 추가 볼륨을 적용해 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스택 높이와 미드솔 구조를 개선해 이전보다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구현했다. 또한 힐-토 드롭을 기존보다 3mm 증가시켜 총 8mm로 조정함으로써 쿠셔닝과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정제된 힐 핏은 다양한 발 모양을 가진 러너들에게 최적의 착화감을 제공한다.

내구성이 강화된 아웃솔은 마모가 잦은 부위에 고무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더욱 오랫동안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어퍼는 통기성이 뛰어난 자카드 소재를 사용해 발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신발 상단 곳곳에는 리플렉티브 요소를 더해 가시성을 높였다. 더블 레이스 락 시스템은 텅(tongue)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신고 벗는 과정까지 더욱 간편하게 해준다. 머니투데이

나이키 에어 슈퍼플라이 '사이버' 공개

약 25년 만에 돌아왔다. 나이키 에어 슈퍼플라이 '사이버'가 공개됐다. 에어 슈퍼플라이는 지난 2000년 출시 당시 세련된 레이싱 트레이너 실루엣으로 주목받았던 모델로, 약 25년 만에 '사이버' 컬러로 새롭게 돌아와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스니커는 네온 그린, 스카이라이트 블루, 메탈릭 실버 등 대담한 컬러 플레이로 강렬한 존재감을 자아낸다. 텅과 미드솔에는



에너지 넘치는 네온 그린 컬러가 채색됐으며, 사이드월에는 메탈릭 실버가 적용돼 미래지향적인 무드를 더했다.

이외에도 아웃솔에는 스카이라

이트 블루 바탕 위에 레드 트레드 디테일이 대비돼 스포티한 느낌을 강화했으며, 어퍼에는 통기성을 고려한 퍼포레이션 소재가 적용돼 기능성과 패션을 모두 잡은 실루엣으로 완성됐다.

나이키 에어 슈퍼플라이 '사이버'는 4월 29일, 나이키 공식 웹사이트 및 일부 리테일러 숏에서 만나볼 수 있다.

HYPEBEAST

팀버랜드, 자크뮈스와 협업 통한 '보트 슈즈' 탄생

대담한 컬러와 세련된 실루엣의 만남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팀버랜드(Timberland)가 프랑스 럭셔리 패션 브랜드 자크뮈스(Jacquemus)와 협업하여 '팀버랜드 X 자크뮈스 3 아이 러그 보트 슈즈, 라 바또(La Bateau)'를 선보인다.

이번 협업 제품은 자크뮈스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시몽 포르테 자크뮈스(Simon Porte Jacquemus)가 사랑하는 '바나나 옐로우' 컬러를 중심으로, 팀버랜드 특유의 헤리티지 스타일



▲팀버랜드가 프랑스 럭셔리 패션 브랜드 자크뮈스와 협업했다.

에 자크뮈스의 감각적인 마학을 더해 새롭게 재해석했다. 고유의 대담한 컬러와 세련된 실루엣이 만나 현대적인 감성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라 바또'는 프리미엄 팀버랜

드 가죽과 부드러운 가죽 안감으로 제작되어 착화감이 뛰어나며, 견고한 러그 아웃솔과 코튼 슈레이스를 적용해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협업을 기념하는 디테일로 메탈 레이스 키퍼와 스퀘어 형태의 레이스 팁 아일릿을 더해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전통과 현대, 아웃도어와 하이패션을 넘나드는 이번 신제품은 팀버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푸마, 지난해 수익 목표 달성 실패...주가 급락 경쟁사인 아디다스는 예상 뛰어넘는 호실적 기록

독일 스포츠웨어 브랜드 푸마의 주가가 지난해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급락했다.

2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푸마의 지난해 순이익은 2억8천200만 유로(4천219억원)로 전년 대비 3억500만 유로(4천563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푸마의 RS-컴퓨터 운동화. (사진=푸마)

대비 9.8% 증가했다. 액세서리와 직접 소비자 판매가 운동화

와 의류 판매를 앞질렀다. 이에 푸마 주가는 이날 오후 20% 하락했다.

반면 경쟁사인 아디다스는 지난해 4분기 삼바와 가젤 등 고전적인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크리스마스 기간 판매가 늘어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ZDNET Korea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기계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나이키, 中 투자 강화... 상하이에 새 스튜디오 연다 5대 도시 중 하나로 상하이 선정



▲나이키 매장. (사진=픽사베이)

나이키가 중국 시장 투자를 강화하면서 상하이에 새로운 창작 스튜디오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스튜디오는 '아이콘 스튜디오 (Icon Studios)'라는 내부 제작 부서로, 디지털 비디오, 제품 촬영,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 및 라이브 스트리밍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외신은 나이키가 최근 몇 년간 중국에 새로운 시설들을 추가하고 있으며, 선전의 기술 센터와 상하이의 스포츠 연구실 등이 그 예라고 보도했다.

또, 외신은 나이키가 중국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해 75억 달러(약 10조 7천 33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 2021년 83억 달러(약 11조 8천 781억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최근 나이키 주가는 27% 가량 하락했다. 이에 나이키는 엘리엇 힐 CEO가 지난해 말 중국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힘을 쏟고 있다.

힐 CEO는 회사가 중국에 대해 장기적으로 여전히 매우 긍정적이며, 중국을 위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이키는 베이징,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상하이를 주요 다섯 개 도시로 선정해 제품을 위한 마케팅 이미지와 비디오를 만들고 있다.

ZDNET Korea

클룩 x 아디다스 가젤 실크 팩 by 에디슨 첸 공개 여태 알고 있던 가젤은 잊어라.

클룩과 협업한 아디다스 가젤 실크 팩이 공개됐다. 이번 팩은 에디슨 첸이 나이키에서 아디다스로 이동한 이후 본인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가미한 새로운 컬렉션으로, 클래식한 가젤 실루엣에 해체주의적 디테일이 더해져 재해석됐다. 이번 스니커는 '크림 화이트'와 '나이트 마린' 총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됐으며, 모든 제품군에는 기존 고무 소재 대신 두툼한 크레페 아웃솔이 적용돼 럭셔리하면서도 러기드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점이 특징이다.

먼저, '크림 화이트' 모델의 어퍼는 고급스러운 새틴 소재로 감싸졌으며, 그 위로 프리미엄 스웨이드 오버레이가 덧대져 텍스처가 돋보이는 실루엣으로 제작됐다. 이어, '나이트 마린' 컬러 모델은 딥 블루 새틴 어퍼 위에 그린과 옐로 스트라이프가 포인트로 더해졌으며, 텅과 힐 부근에는 지그재그 스티칭이

적용돼 해체적인 무드를 강조했다.

클룩 x 아디다스 가젤 '크림 화이트' 모델은 4월 14일 오후 11시, '나이트 마린' 모

델은 4월 19일 오후 4시부터 아디다스 컨셉드 앱에서 만나 볼 수 있다.

HYPEBEAST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백수’ 유감

퇴직하고 백수가 되니 사람들은 필자가 엄청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일이 많아진 것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다. 아마도 한국어교수 1세대라 부르는 곳이 많아서인 것 같다. 글도 매일 쓰고 강의도 4군데, 칼럼도 쓰고 주간지와 월간지에 한국어 관련 글도 보내야 하고, 동영상도 찍고, 한국어(한문) 교육 자원봉사도 해야 한다.

‘백수(白手·한 푼도 없는 처지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되었는데, 백수 생활이 그림다. 필자는 1982년도에 태능중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단 하루도 백수 생활을 해 보지 못했다. 친구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한다. 퇴직할 때는 해외 여행·국내 여행 등 많은 꿈을 꾸고 기대했는데, 어쩌다가 이리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투덜투덜...

백수로 백수(白首·아흔아홉 살)하고 살면 좋은데,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그것도 꿈인가 보다. 백수(白首)가 다 되었는데 염색으로 감추고, 백수(百獸)의 왕인 호랑이 노릇해 보고 싶은 심정이다. 백수(伯嫂·큰형수)는 필자 보고 제발 백수(白鬚·흰 수염) 좀 깎으라고 난리다. 우리말은 참 한자어로 된 동음이의어가 많다. 아이고!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화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뉴발란스 9060 ‘에어 맥스 1’ 공개



나이키가 아니라 뉴발란스 맞습니다.

뉴발란스 9060 ‘에어 맥스 1’ 스니커가 공개됐다. 타이틀만으로도 이목을 끄는 이번 스니커는 이름 그대로 1987년 오리지널 에어 맥스 1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전개됐으며, 아이코닉한 나이키 실루엣을 뉴발란스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스니커헤드들의 큰 화제

를 모았다.

스니커의 어퍼는 화이트 메시 소재로 감싸져 뛰어난 통기성을 제공하며, 상단에는 딥 레드 컬러 스웨이드 오버레이로 감싸져 강렬한 시각적 대비를 선사한다. 이어 기술적으로는 뉴발란스 특유의 앰블브 쿠셔닝과 웨이브 솔 디자인이 탑재돼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한다.

뉴발란스 9060 ‘에어 맥스 1’는 현재 뉴발란스 공식 웹사이트 및 일부 리테일러숍에서 만나볼 수 있다.

HYPEBEAST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다 높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실현, 노통보일러의 폭넓은 스테이지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친환경
NOx 40ppm 이하



중기건도
98%이상



보일러효율
99%이상



연소제어
비례제어



DMI-Series

- 컴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선,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컴팩트한 설계
폭 1,960~2,730mm



중기건도
98%이상



보일러효율
90%이상



연소제어
스텝제어

산업용 보일러 외길 54년!
(주) 대열보일러
DAEYEO BOILER CO., LTD.
INDONESIA AGENCY

영업 담당 : 이 광 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제조공장(서산 소재) ▶



www.dylboiler.co.kr

한국 법원 “여권 영문 이름, 로마자표기법과 다르게 표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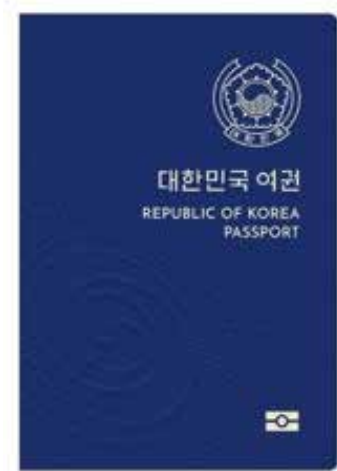
“표기법은 가이드라인… ‘태’를 ‘TA’로 표기하게 해달라는 신청 거부는 위법”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5)양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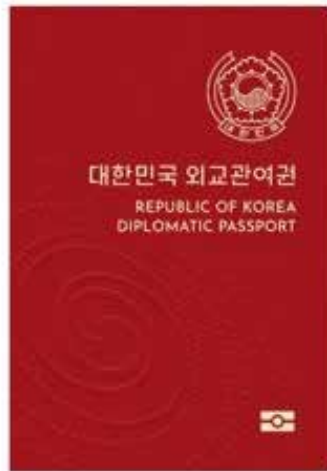
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



고, 법원은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

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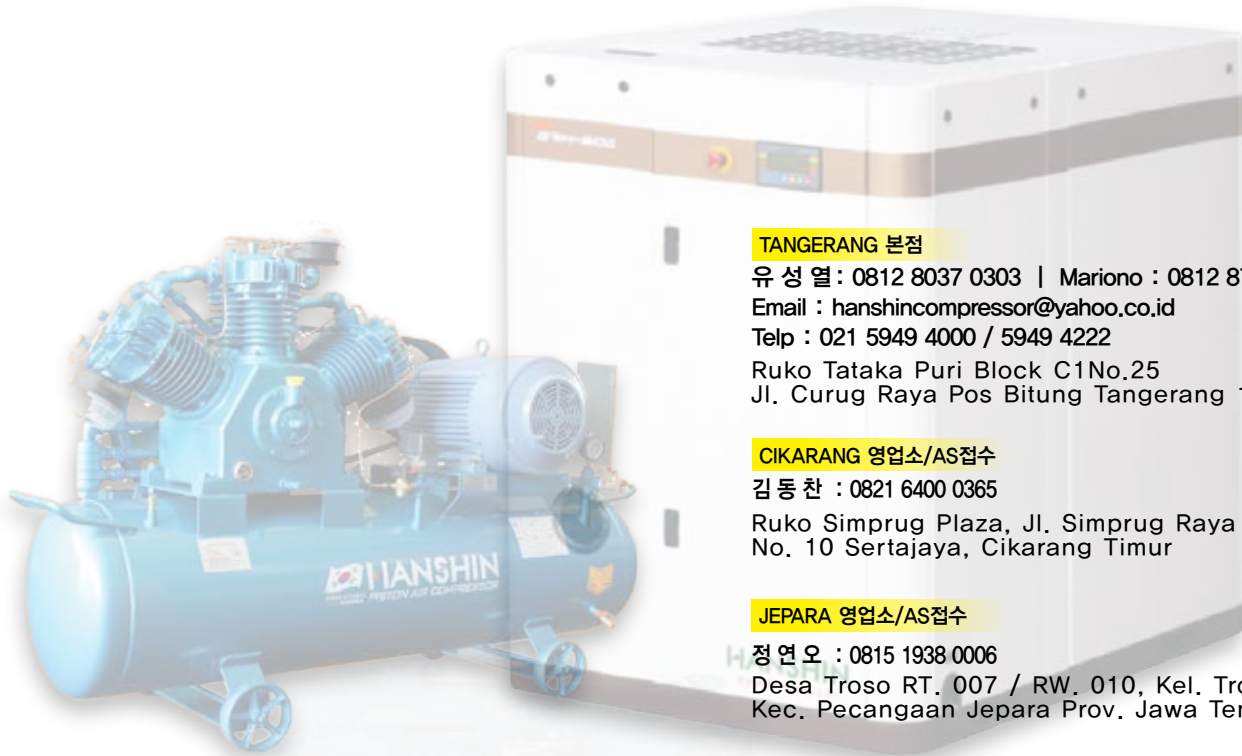
또 변경하고자 하는 성명에 대해서도 원칙적 표기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로마자 성명 변경을 가능하게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도 ‘cap(캡)’, ‘nap(넵)’, ‘fan(팬)’ 등 모음 ‘A’를 ‘애’로 발음하는 단어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며 ‘TA’의 음역이 ‘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변경을 제한할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인포스트 사회부)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